

박은영

작가노트

액체적 재 : 상상의 물질에 대한 탐구

나의 작업은 어둠에서 빛으로, 남에서 금으로, 현자의 돌을 얻기 위해 끊임없는 변화에의 욕망을 쫓았던 중세 연금 술사들의 행위와 유사하다. 존재하지 않는, 혹은 상상의 그 어떤 물질들을 혼합하여 새로운 물질, 상상의 물질-액체 적 재-을 만드는 행위는 세계 즉 다양한 현상들의 충돌, 만남으로부터 창출된 이질적 결합의, 상상의 물질에 대한 탐구이다. 액체적 재-상상의 물질은, 흘러내리는 물, 혹은 타오르는 불꽃과 같이 상승과 하강 운동의 끊임없는 순환, 생성, 소멸 그리고 되어가기(devenir)의 잠정적 중간 상태에 존재하는데, 그것은 물질의 고체적 상태와 액체적 상태의 그 중간의 모순된 존재와 같다고 볼 수 있다.

나는 이러한 상상의 액체적 재와 그것의 존재 공간을 조형적으로 탐구하고 만들어내는데, je vois (나는 본다)라는 세계를 보는 틀 혹은 장치로서의 Vidéo로부터 출발하여 철학적 인식론적 영역인 vide et eau (비어있음과 물)를 통해 Vidéoariétés (비디오 혼성)의 영역으로 범위를 확장 시켜 나간다.

나의 작업방식인 «복합 매체»는 조형 예술과 종합 예술로서의 현대 멀티 미디어 공연 예술이 만나는 경계선 상에 있다. 예술은 이제 모든 경계를 넘나들며 서로 끊임없이 혼성(hybride)되는 관계에서만 존재하고 있는 듯 하다. 현대의 예술가는, 마치 미로같은 컴퓨터 칩의 통로들 속에서, 복합 매체들을 자유롭게 능숙하게 사용하여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지적이고, 창조적이며 분석적인 예술가이자 동시에 능란한 기술자가 되어야 하는 것처럼 보인다. 최근의 동향과 현대 예술의 실험적인 면들은 단지 마술적이거나 현란한, 유희적인 효과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장르를 확장하고 기존 개념을 흔들며 놓고, 문제를 제기하며,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데에 의미가 있을 것이다.

나의 복합 매체적 작업은 비단 멀티 미디어가 순수 조형 예술에 혼합되는 형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 헤테르포니적 혹은 화이부동적인 의미를 지닌, 개별적이며 동시에 혼성적인 의미인 불어의 «synchrétique»에 가까운 통합적, 종합적, 복합적인 «synthétique»적 분야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대개 일본 부토 공연에 영사되었던 나의 비디오 서체적(vide-eau-calligraphie) 작품들은, 비디오 프로젝터를 통해 느리게 영사된 이미지와 공연속의 무용수들의 움직임의 미묘한 안무적인 즉흥을 연출한다. 스크린, 벽면, 사물(objet) 혹은 신체 위에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투사된 영상의 디지털 처리 방식은, 물의 불확정적인 유동성과 무용수의 미동적인 움직임이 합류되듯이, 비디오의 변칙적인 유동성과의 결합을 가능하게 한다.

항상 유동적인 두 실체(entities) 욕망, 물-는 끊임없이 서로를 연관시키며 불러들인다.

나의 작업의 몇 가지 유형들인 비디오서체 «vidéo-calligraphie», 비디오 댄스 «vidéo-danse», 혹은 비디오 부토 «vidéo-butô»는 유동성과 다른 물질에 부합하는 연관성으로 인해, 욕망, 물의 본성과 매우 흡사하다. 물이 그렇듯이 비디오도 무한히 변형가능하며 비정형적 형태이지만 다양한 형상으로 표현된다. 내가 비디오에(vide-et-eau) 접근하는 방식은 물의 이러한 합류와 결합의 성질과 그것의 헤라클레이토스적 힘, 즉 강렬함에서 그 유사성을 찾는 데 있다.

Etre / Avoir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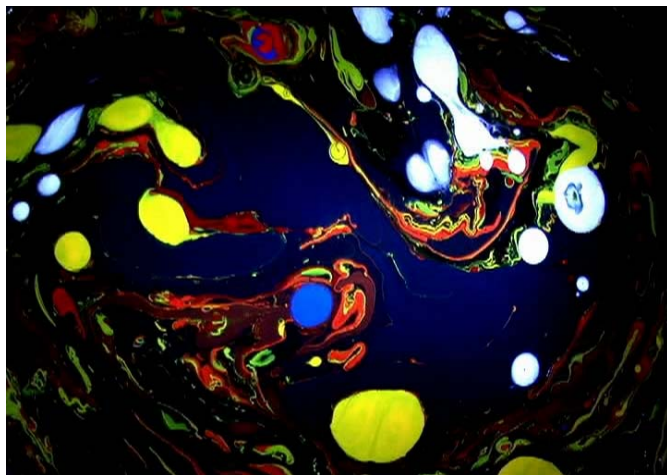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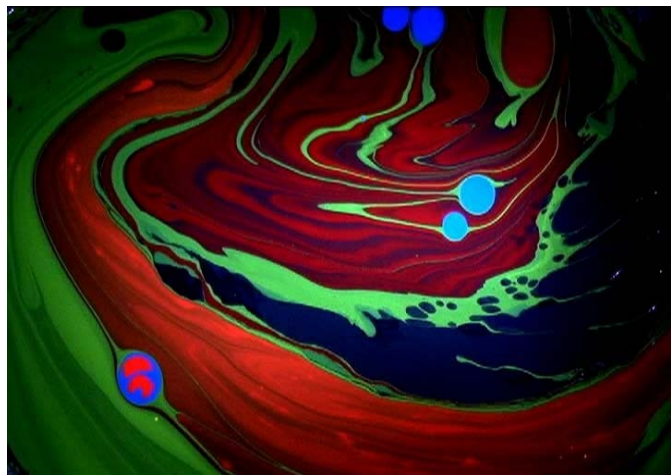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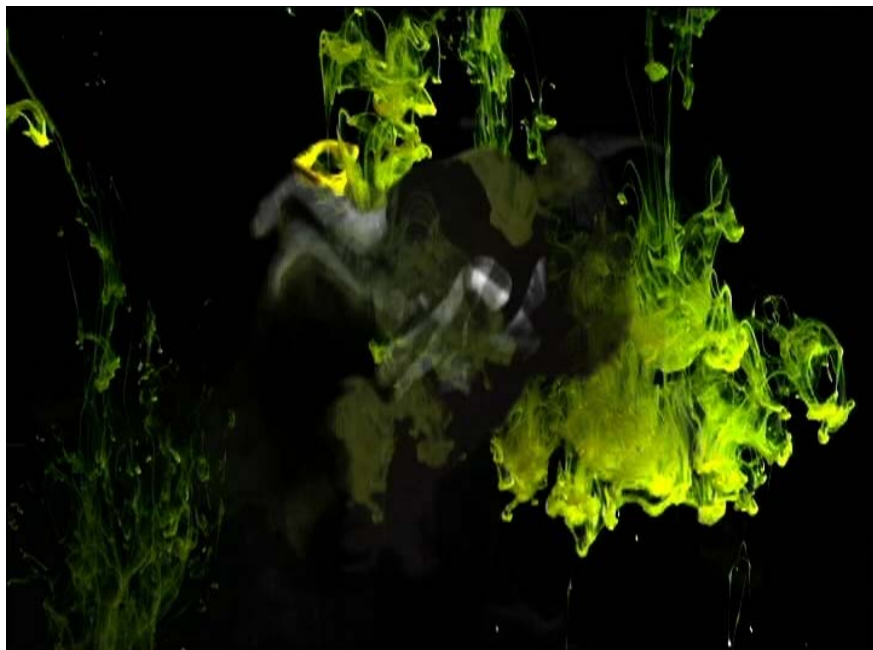
Single channel video, Image design for CDP (Coll Dance Project), 2011



2011년. 11월12일 한국 소리문화의 전당 연지홀 공연, 전주
CDP Being Involved 2011 열번째 만남 현대무용공연 영상디자인

Etre / Avoir #3

Single channel video, 9min 25sec, 2011



Etre / Avoir #4

Single channel video, 1min 15sec, 2011





2011년. 11월12일 한국 소리문화의 전당 연지홀 공연, 전주
CDP Being Involved 2011 열번째 만남 현대무용공연 영상디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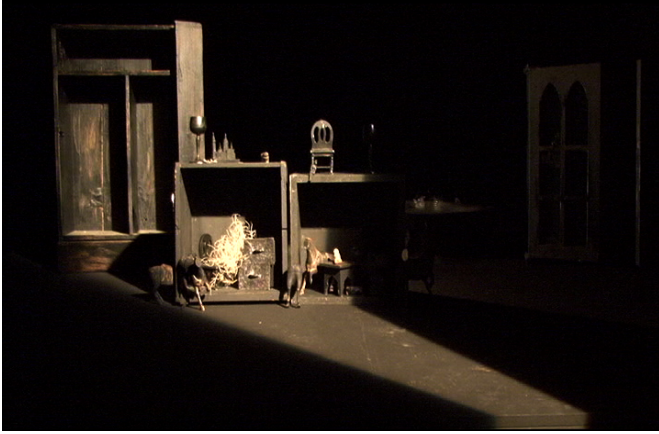
INTERSCENE #1

아르코 미디어 배급작품 공모선정, 아르코 미술관 1층 프로젝트 스페이스, 서울

Animation video/ Miniature Set: Eun Young Park

Sound design: Sang Yoon Lee

Assistants: Jaeyoung Lim, Hee eon Lee



시놉시스

어둠으로 소멸되는 어느 날,
미몽 속에 불현듯 깨어난 인형들은
거꾸로 흐르는 시간을 쫓아 춤추기 시작한다.
정령의 그림자들이 떠도는 공간 속 의자, 테이블, 창문
그리고 난해한 언어들은
한번도 보지 못했던 빛에 관해,
한번도 듣지 못했던 소리에 관해 이야기 한다.
상상의 이야기들은 인형의 꿈이 되어 다시 태어나고 사라진다.
어느날 어느날 꿈 같은 어느날들은 끝없이 그곳으로 돌아간다.

INTERSCENE #2

아르코 미디어 배급작품 공모선정, 아르코 미술관 1층 프로젝트 스페이스, 서울



INTERSCENE #1

Acrylic on canvas, 53X33cm, 2011



INTERSCENE #2

Acrylic on canvas, 31X41cm, 2011



INTERSCENE #3

Acrylic on canvas, 31X41cm, 2011



서울시립미술관 신진작가지원 프로그램 SeMA 선정 작가전
Liquid Ashes 액체적 재(液體의灰) 개인전
2009.10.28-2009.11.3 토포하우스, 서울



Liquid ashes, Exhibition view, Topohaus, 2009

서울시립미술관 신진작가지원 프로그램 SeMA 선정 작가전
Liquid Ashes 액체적 재(液體的灰) 개인전
2009.10.28-2009.11.3 토포하우스, 서울



Cauchemar, Flickering Lightings, Super sculpey, black-box structure, object, 2009

서울시립미술관 신진작가지원 프로그램 SeMA 선정 작가전
Liquid Ashes 액체적 재(液體的灰) 개인전
2009.10.28-2009.11.3 토포하우스, 서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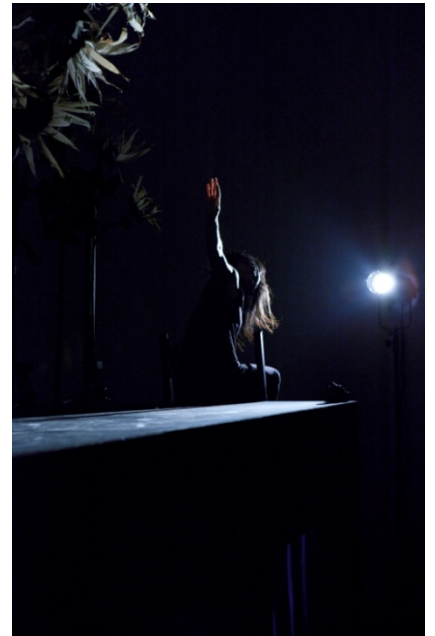


Cauchemar, Flickering Lightings, Super sculpey, black-box structure, object, 2009

<무서운 꿈>

어린시절 어느날 새벽에 눈을 떠보니 도깨비같은 검은 형상들이 손에 각기 무언가를 들고 방 안에서 웅성거렸다. 그 림자인지 실제의 형상인지 모호한 그들은 원을 그리며 방안을 돌며 춤을 추고 있었다. 2007년 봄 나는 이 검은 형상들을 Maki Watanabe 의 *Enfant Loup* (늑대-아이) 라는 부토 공연에서 다시 만날 수 있었다. 어둠 속 미묘한 움직임들이 만들어내는 거대한 힘은 공간을 끊임없이 변형시켰고, 형상을 뚜렷이 알 수 없는 것들의 “되어가기”는 어린시절 꿈속에서 보았던 것처럼 어떠한 목적도 방향도 없이 계속 되어갔다. 몽유병자의 꿈처럼, 혹은 수도사들의 행렬처럼 어린아이의 상상속 우스꽝스런 도깨비들의 행렬은 무언가를 향해 그저 방황하는 춤의 여정만을 남길 뿐이다. 잃어버린 어린시절, 혹은 이상향에의 그리움은 인간의 근원적인 향수에 대한 갈증이며 우리 정신의 영원 회귀에 대한 정신적 굴레일 것이다. 시간의 층들 사이로 몽상하는 자아는 다시 태어남을 꿈꾸며 또 다른 기억과 형상으로의 환원여행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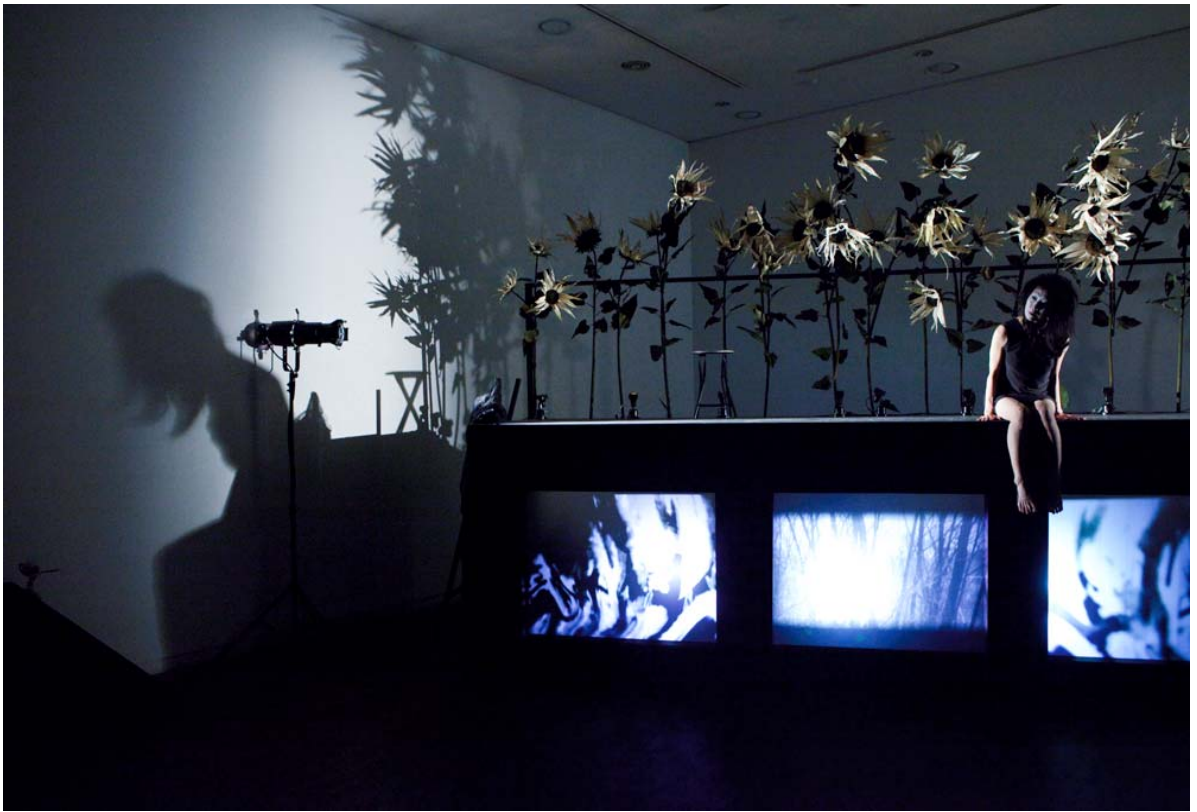


Liquid ashes_ *Performance*, 2009

Performance (Solo): Won Kim, Stage/ image design: Eunyoung Park, Music (CD): Lena Circus, Taka,
Lighting design: Chol Hee Kim, Costume design: Jae Young Yang, Duration: 15min

<액체적 재>

꿈은 늘 다시 태어나고 소멸한다 환영의 그림자 속으로 끝없이 사라지는 이미지들은 빛과 어둠 사이 드리운 감미로운 향해의 물결을 따라 어렴풋 반복되는 형태발생의 포에지를 욕망한다. 때론 상승하는 불처럼, 때론 하강하는 물처럼, 끝없는 기다림을 불러일으키듯 욕망의 황혼은 되풀이 되는 환영 속에 언제나 다시 시작되는 꿈을 상상한다. 노스텔지어와 환영의 인광 속 어딘가에 잊혀진 우리의 사고는 부유하는 욕망의 미동적 움직임에 합류되어 가까스로 그러나 생명의 출렁임의 힘을 빌어 끊임없이 서로를 상기시킨다. 비디오 이미지들은 공간속에서 소멸되고, 공연의 시간 속에 엇갈려, 천연된 또 다른 복수화 된 공간들 속으로 다시 생성되며 흘러내린다. 스펙타클의 무대배경은, 달빛과 같은 어스름한 조명의 음영속에서, 액체적 재 (Cendres liquides)가 상기 시키듯, 포 에지(詩)와 어렴풋이 사라지는 감미로운 강렬함을 드러낸다.



Liquid ashes_ Performance, 2009

Performance (Solo): Won Kim, Stage/ image design: Eunyong Park, Music (CD): Lena Circus, Taka,
Lighting design: Chol Hee Kim, Costume design: Jae Young Yang, Duration: 15min



Espace du Désir, 3 black-box structures, Digital Lighting Console, Mobile Projectors, Mist Machine, helichrysum, Figures, Objects, 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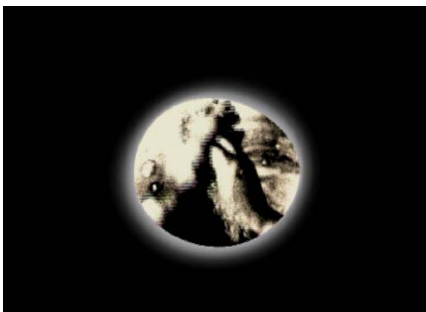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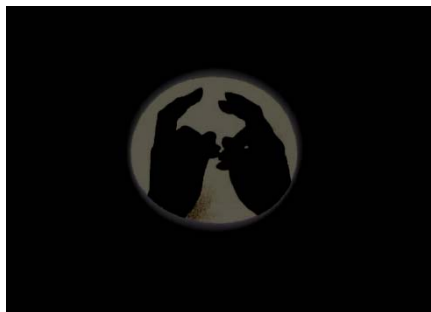
Espace du Désir, 3 black-box structures, Digital Lighting Console, Mobile Projectors, Mist Machine, helichrysum, Figures, Objects, 2009

<욕망의 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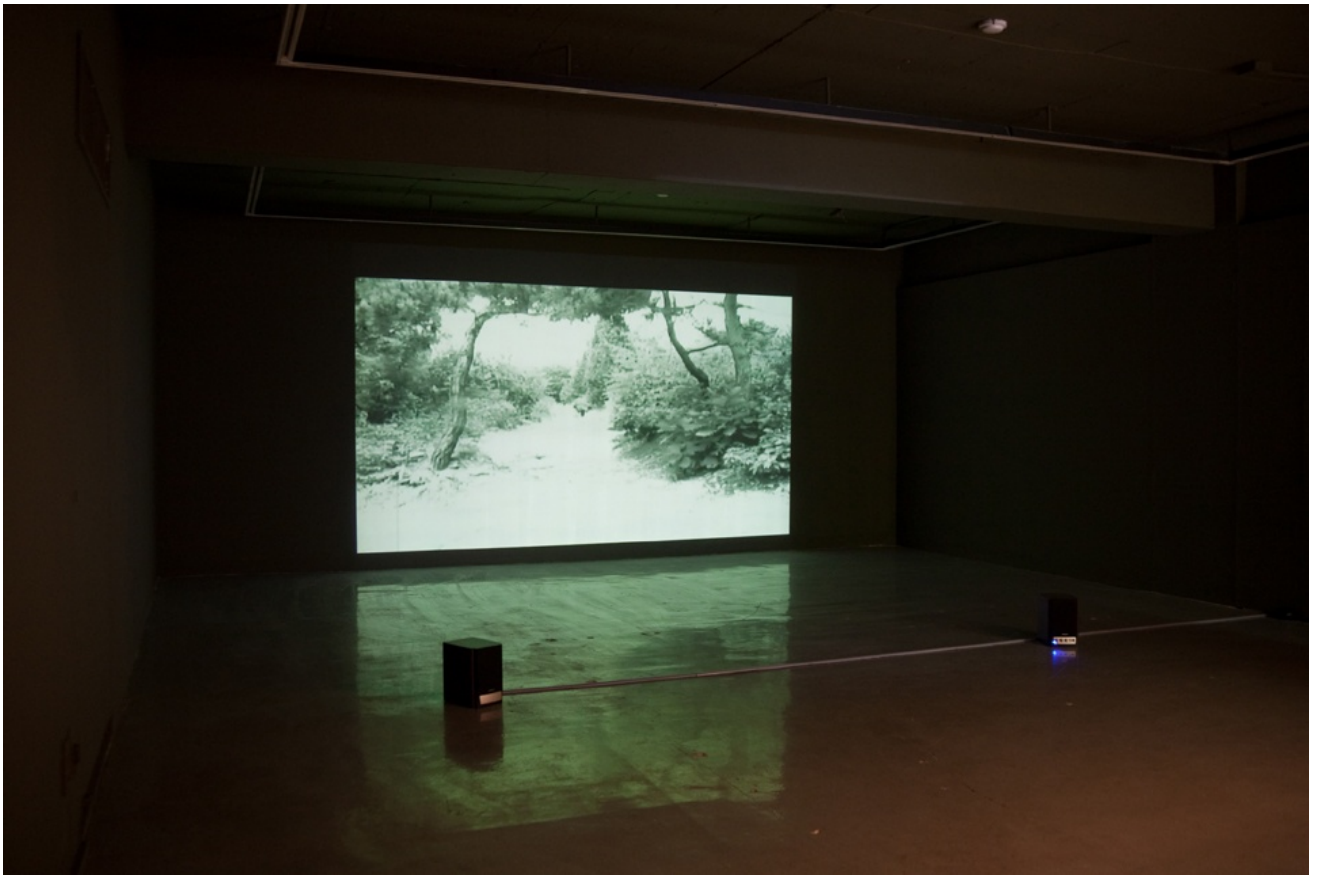
무의식이라는 무대 위에 몇 가지 사물을 올려놓는다. 검은 무대 속, 빛에 의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기도 하고 사라 지기도 하는 대상들을 보며 내 머릿속의 기억들을 이리저리, 때론 지우고 때론 다시 재생해본다. 욕망을 따라 “헬리 크리스섬 -영원한 계단”을 오르기도 하고, 순식간에 사라지는 안개처럼, 잡을 수 없는 것을 쫓아보거나 혹은 떠나보내고, 어린시절 그러했던 것처럼 거울저편에 장난감들을 무한히 증폭시키기도 하고 살짝 감추어 버리기도 한다.



Deux lapins, 2009, Video, Musique (Lena Circus), installation view-Ssamzie space, Seo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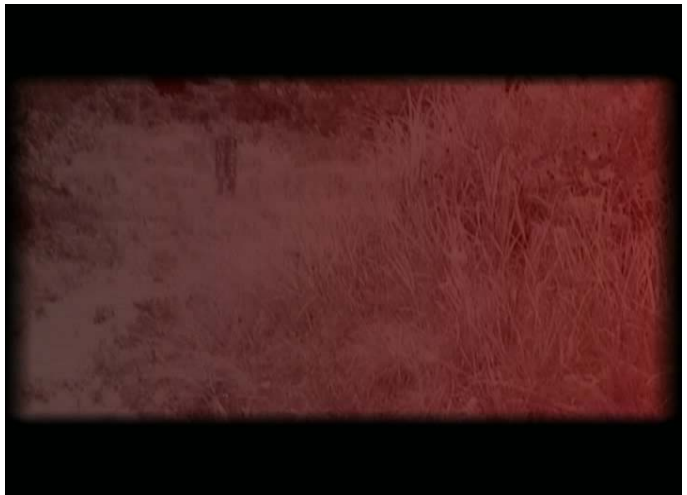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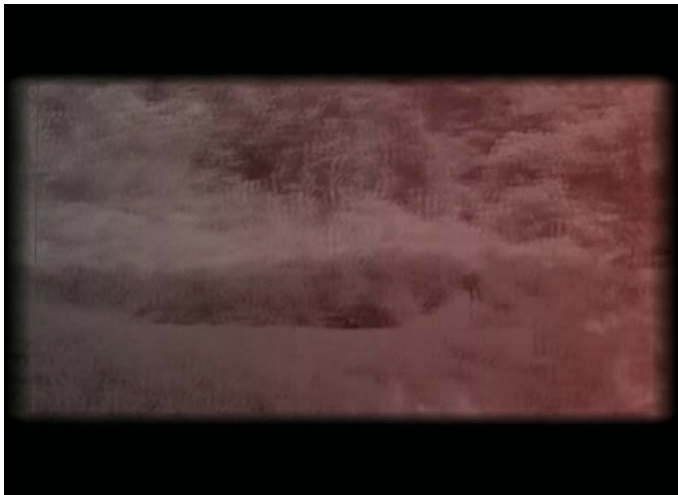
Deux lapins, 2002, 2009, Video, Musique (Lena Circus), PAL, 4:3, 2min 32s



La Mer, Single channel video, Musique (Lena Circus), installation view-
Ssamzie space, Seoul, 2009

카메라가 숲 속을 걸어가는 어머니의 뒷모습을 따라간다. 화면은 파도가 넘실대는 바다로 전환되고, 이 물의 움직임은 다시 숲 속의 여인과 화초의 모습이 겹쳐짐으로써 흐르듯 표현된다. 물 위를 떠다니듯 움직이는 카메라를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누군가의 무덤에 도달한다. 위는 박은영의 비디오 <La Mer>의 내용이다. 박은영은 생성과 소멸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장면을 표현함으로써 미지의 세계이자 자신의 상상력의 원천이 되는 자연의 근원지를 드러내고자 한다. 그의 자연의 근원지에서는 모든 대상들은 처음의 상태도 되돌아감으로써, 삶과 죽음 역시 대립이 아닌 연속의 관계로 변모하게 되고 현실세계에서 규정된 대립과 모순의 관계들을 해소하는 듯하다. 생성을 상징하는 숲과 바다는 서로 겹쳐지고, 움직이는 영상으로 표현되어 생명력 있는 공간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이 공간들이 붉으스름한 화면으로 처리되었을 때, 우리는 마치 불에 타는 듯한 소멸을 경험한다. 특히 물과 불은 대상들을 소멸시킴으로써, 현실세계를 해체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Chunja rain series>에서 글자들은 흩날렸고, <Toit>에서 집의 모습은 물처럼 흘러내렸다. <Cauchemar series>에서 설치된 공간은 프로젝션의 불 안에 타 들어갔다. 영상의 마지막에 마주치는 누군가의 무덤이 역시 죽음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어머니라는 생성의 상징물과 함께 보여지는 물, 화초, 숲의 공간들을 거쳐서 도달하는 공간으로, 생성과 소멸의 연속성을 보여준다. 이 연속성은 박은영이 사용하는 느린 화면과 오버랩의 사용으로 가시화되는데 이 두 공간의 전환을 모호하게 하며, 생성과 소멸의 공간을 동시에 드러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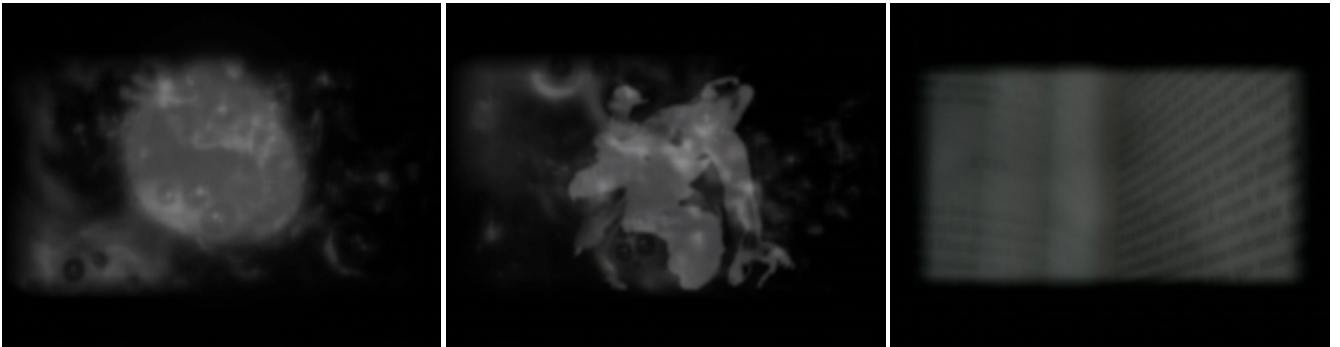
주 은 영(쌔지 스페이스 큐레이터)



La Mer, Single channel video, music: Lena Circus, PAL, 7min 28s, 2005

Ecume

Single channel video, Lena Circus (music), PAL, 4:3, 7min19s, 2005, 2009



<거품>

도시의 현란한 빛과 어둠 속으로 어디론가 잊혀진 환영의 그림자들은 화면 속에 어렴풋한 풍경으로 스쳐지나간다. 동심의 세계는 미몽 迷夢 의 도시 속으로, 우수 어린 동화 속으로 끝없이 사라져 간다. 그러나 언제나 다시 시작되는 꿈들은 시간을 가로지르며, 그것을 부인하며, 잃어버린 기억의 층들 사이로 우리의 향수를 상기시키는 듯하다.



Image Design for *Seeing Inner Side*, 2008, Second Nature Contemporary Dance Company, The National Theater of Korea, Small Hall Dal



Cauchemar Series, mixed media, dimension variable (detail), installation view-Busan
Museum of Art, Busan, 2008



Cauchemar Series, mixed media, dimension variable (detail), installation view-Busan Museum of Art, Busan, 2008